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상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보다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2000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0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배풀어진다.

이번 학습세례식에는 학습 29명, 세례 35명, 유아세례 32명, 입교 12명, 개종 1명으로 모두 109명의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속한 교구나 부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들이 준비된 마음과 진경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도 옷 입었느니라" (갈3:27).

2000년도 제5차 성찬식

다음 주일 1부에서 5부까지 모든 예배 때

2000년도 제5차 성찬식이 다음 주일 1부에서 5부까지 모든 예배시간에 배풀어진다. 성찬식은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 앞에 흠이 없는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는 기독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결코 행사로 시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성찬식을 위하여 한 주간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몸과 마음의 정결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식후에 도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기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11:25).

LMTC(Local Missionary Training Course) 12기 개강

이번 주, 토요일(9월2일), 오후 5시

선교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 단기선교훈련과정이 아래의 일정으로 개강하게 되었다.

① 개강일시:

1학기: 9월2일(토) - 12월9일(토)

2학기: 2001년 3월3일(토) - 6월23일(토)

② 강의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③ 강의장소: 배다나홀

④ 수강료: 훈련비 50,000원

교회 및 주변 대청소 8월30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봉사위원회에서는 금주 수요일(8월30일) 1부 예배를 마친 후,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및 교회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원은 17개 교구 약 800명의 성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소대상 범위와 필요한 인원은 아래와 같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봉사에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교회내

① 본당 1층: 1교구

② 본당 2층: 2교구

③ 강렬리틀: 3교구

④ 할렐루야: 4교구

⑤ 선교관 1층-5층: 5교구

⑥ 1교육관 1층-5층: 6, 7, 8, 9, 10교구

⑦ 1교육관 옥상 침소제: 11교구

⑧ 교회주변 화단 잡초제거:

본당 앞, 뒤: 12교구, 13교구

선교관 앞, 뒤: 14교구, 15교구

교육관 앞, 옆: 16교구

⑨ 연나홀: 17교구

교회주변-약도 참조(약도의 번호는 각 교구)



교회설립 47주년 기념 특별금요집회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본당에서

이번 주, 금요집회는 설립 4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드려지는 집회로 준비되었다.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는, 8명의 장로들이 '장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원사적 의미와 연관시켜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회에 선포할 주제를 위해서 해당 장로들은 두 달 가량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왔다. 이번 집회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교회의 모든 장로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과 연구,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선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문에 대한 서론 ② 성경에서의 창문 이야기 ③ 하나님의 역사로 창문을 여시고 구세주를 보내셨다 ④ 하나님은 창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⑤ 창문을 여시고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주신

다 ⑥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다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금요집회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간충현 편집실, 출판국 사무실 이동

지난 주에 '주간충현 편집실, 출판국' 사무실 이동이 있었다.

선교관 3층에 위치하고 있었던 주간충현 편집실, 출판국이 4층 엘리베이터 맞은편으로 이동하였다. 성도들은 이동한 사무실을 숙지하시고 방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임시당회

오늘 찬양예배후 당회실에서

목·장발명

가을의 기도

김 동 하 (목사, 출판국 지도)

파이란 하늘
가을날의 코스모스!
당신의 싱그러움 승결로
꽃잎에는 향긋한 언어(言詞)이 깃들고
나는
그 말씀
깊이 깊이 새기려
어느새
교육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나는
옷깃을 스치는 가을 바람,
있을 수 없는 당신의 속삭임에
가만히
그대가 남겨두신
십자가(十字架)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비록,
아주 먼 옛날
당신이 주셨던
에덴(eden)의 행복이
잃어버린 사랑의 그리움일지라도

또 다시 가을입니다.
주님, 나의 작은 마음이 어찌한 당신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오늘
밤도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His Body and His Blood

(Matthew 26:26-30)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In celebration of the Passover, Jesus reclined at a table with the twelve disciples to share in a special dinner. This Passover dinner was a commemorative ritual, a time for God's people to remember their redemption their day of salvation. As God's people, they were at one time slaves of the Egyptians, until the night that God delivered them from their oppressors into His kingdom. He saved them from sin through the lamb's blood that was sprinkled on the door frames of their homes. They enjoyed that night because death passed over them. The Passover Lamb became a symbol of safety; for everyone who did not have the lamb's blood was destroyed.

This Passover dinner was to be Jesus' last meal. He knew this. That's why He changed it to reflect the new relationship and meaning that His death symbolized.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vv. 26-29). Just as God delivered the Israelites from their sins in Egypt, Jesus now delivers all God's people from their sins. His blood saves all who believe from eternal death. His blood provides eternal security. He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ave the world. He is the Lamb of God—the Savior of the world!

The dinner Jesus shared with His disciples that night was really important. It had deep meaning. It was about His work and His will. He purposefully talked about covenant because His blood was the means for the New Covenant. A covenant, promised agreement, occurs between at least two people. Jesus Christ made a covenant between humans

and Himself. In other words, between God and man. That relationship is a new relationship, a new covenant. At

is My body" and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because He wants you to

*Because God loves you,
that's why He gave His only Son to you.*

*Jesus took all the suffering;
He took death because of God's great love for you.
Even through His death, He continually
loves you. This is God's love—His body,
His blood. Because Jesus Christ took this way,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for relationship with God.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God's
wonderful love.*

*He went to Calvary mountain
was to open the way for you to go to the throne of
God. His body and His blood give you
the wonderful blessing of redemption in the new
covenant. Join today's communion
service and remember how much He loves you.
Think about how He gave His life
and opened the kingdom of God for you to enter.
Praise Him! Praise God for
His awesome grace that sets you free from sin and
gives you everlasting life!*

the Last Supper Jesus explained His life and death because He wanted to make a new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He said, "take eat; this

accept, understand, and remember the significance of His love. God is in Jesus. Jesus told you and showed to you how much God loves you

through His sacrificial death. Because God loves you, that's why He gave His only Son to you. Jesus took all the suffering; He took death because of God's great love for you. Even through His death, He continually loves you. This is God's love—His body, His blood. Because Jesus Christ took this way,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for relationship with God.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God's wonderful love.

This all important message is something you must sing about and take with you when you leave His table to go out into the world. The Jewish people of Jesus' time usually sang a traditional hymn called "Hallel", which means praise God. "After singi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v. 30). It is recorded in various parts of the Psalms. Psalm 136:1 & 26 read,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lovingkindness is everlasting." Amen! This is something all Christians should sing with joy after eating at the Lord's table.

Before Jesus went to the mountain of Gethsemane, before He suffered in front of the Sanhedrin, before He died on a cross, He took this Last Supper invitation. Even before He took this Last meal, He blessed the food because He thought about His Father's kingdom. My dear friends, that means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not about failure. Jesus' cross represents glory! The reason He went to Calvary mountain was to open the way for you to go to the throne of God. His body and His blood give you the wonderful blessing of redemption in the new covenant. Join today's communion service and remember how much He loves you. Think about how He gave His life and opened the kingdom of God for you to enter. Praise Him! Praise God for His awesome grace that sets you free from sin and gives you everlasting life! 🕊



김성팔 목사

주의 몸과 언약의 피

(마26:26-30)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의 시작

유월절 절기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에 기대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한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셨던 사건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 문설주에 뿌려진 양의 피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들 머리 위로 그냥 넘어가 지나쳤기에 그 밤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양은 안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날에 멸망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이 유월절 저녁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관계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26:26-29). 애굽에서 그들의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의 피는 누구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의 보혈은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성찬을 통한 새로운 언약

그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던 저녁식사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와 뜻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은 새로운 언약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언

약, 즉 약속된 동행은 최소한 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인간과 그분 자신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 이것은 언약의 내 피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기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

택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성찬의 기쁨

이 모든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찬양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예수의 식탁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 갈 때에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진 “할렐”이라고 하는 전통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마26:30).” 이 찬송은 시편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1, 26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에서 먹고 난 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청

예수께서 셋째마레 동산에 가시기 전, 산헤드린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전에 음식에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재가 아니라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향을 드리입니다. 그가 갈보리 언덕에 가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몸과 그의 피는 여러분에게 새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오늘 성만찬에 동참하시고 예수께서 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생명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므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갈보리 언덕에 가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몸과 그의 피는 여러분에게 새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오늘 성만찬에 동참하시고 예수께서 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생명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그 관계는 새로운 관계요 새 언약이었습니다. 최소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생명과 죽음을 대제 션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그리고 “모두 마시라, 왜냐하

나. 예수께서는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므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사랑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땅끝까지



김인식 (목사, 이집트 단기선교팀 지도)

한 미 혜 (스리랑카 단기선교팀)

7월25일 새벽 스리랑카에 도착한 우 리들은 ‘누게다나’의 한 현지인 가정을 본부로 정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 리 팀의 사역결정은 캄프스사역, 심방사역, 반박사역, 비토리야 공원정전, 솜발라지 집교회 이루어졌습니다. 캄프스사역에 있어는 대항쟁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알더라도 철학이나 성인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와교라자 신들의 종교에 대해 사탄가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알아듣고 열려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곳이지만 놀라움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우리 외선반부 출석하고 있는 위박인 군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위박인은 조별로 이루어졌는데, 전교에 흩어진 외선반부 출석하고 있는 형제들의 가정을 심방하여, 그들의 가정에 복음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자 아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던 스리랑카 형제들의 불교인들을 잊을 수 없습니. 독실한 불교인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며 전지하게 되는 모습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가 가정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만난 예수님을 열광하

현지인들이 명이나 되었습다. 빅토리아가 공원에서 놀러온 현지인들과 배드민턴과 공놀이를 하면서 그들과 친목을 도모한 후 주별로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나섰습다. '블로그'라고 예수님이 대해 말할 때 별반을 보지 않던 현지들이 술과 담배를 곁엿한 음식, 율동의 연습을 보이자 관심을 갖고 우리 정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려준다고 느낄 수 있었습다. 우리는 현지인들과 손을 맞잡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었습다. 마지막 순례와 떠날 때는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현지인들에게 본부 주소를 가르쳐 주었 습다. 그들은 본부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순서였습다. 160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들의 발견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했던 찬양과 율동 그리고 연극을 공연했습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현지인들과 서로 가까워졌는 듯습다. 마지막에 우리는 웃음으로써 또 눈물로 그들과 작별임을 했습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에 모두 매달렸습다.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고를 매듭지었습다. 웃음으로 가득찬 사랑과 화하루빨리 복음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다.

하나님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때에 자기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단만이 수단만이 선교를 열기 위하여 동안을 기도하여 준비를 했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뜻을 역으로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동안 방황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2년 2개월을 숨어있던 곳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당연히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들어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출발 하루전인 8.3(수) 오후 6시 경이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연 령하고 금식을 하면서 비전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출발당일 여전히 여행사에서 대사관에서 괴롭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영아부임에서 천 대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십니다.

하고도 만일 알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
 하는 일이 전하였습시다. 하나니께서는
 우리들을 모카파의 쓰레기 마루와 무덤
 마루의 아래서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고
 고,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고아들을 만
 하고 해마다 구경지역의 수만 난민들에
 대해 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산후의 제 1 편
 16)
 적을 배워 애용하고 있는 하나니분들에게는 의국의 자
 격을 베풀어 영혼들을 인도 하였습니다. 다 무덤보다
 감히한 것은 한란과 풀 중에서도 황
 개 열린 하늘들을 통해 애용당하는 참
 하락하신 악수의 말씀(사19:22-25)을 믿
 음으로 지키는 지교회와 성도들을 만
 개 하신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나
 해 하나니께서 어떻게 한영혼 한영혼을
 사랑 하시느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니의 영혼 사랑하는 마
 음입니다. 수단에 들어 가지는 못했지만
 배 애용하기를 마땅히 들 즈음에 그
 정은외 선교회에서 가져왔는 속소로
 보내주셔서 수단의 현지 상황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지역이
 많은 수해로 아등아등하고 불가사 앓을 것
 한단 이야기를 듣고 찬양했습니다. 이
 제부터 시작 아래로 애용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가 애용하여 만년 영혼
 들을 주고 수단을 품고 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니께서 다시 우리들을 그곳으
 로 보내신다 말씀지 만입니다.

*편집자 주
이집트 단기 선교팀은 원래 수단을 사역지로 정하였으나 비자 발급상의 문제로 사역지를 이집트로 변경하고 선교사역을 마쳤다.

주님께

심충주학교에서 옥 펴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어린왕 〇〇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
재를 믿지 않았습다. 하나님께 감사도 못했지요 때문
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
나님 덕분에 제가 이런 신앙수련회라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에 오시기 한지도 감사드리
니. 만약 13호를 받고 사회에 나왔다면 저는 분명히 사
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덕분에 소년원에서 4
개월20일동안 반성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기회를 원망하고 미안했습다. 제가 나기에 해달라고 원
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년원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수련회 기간에 목사님과 선생
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신 거라고 말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사고칠 것이라며 조
금더 반성하고 깨달으라고 그러신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
습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다. 저를 위해서라면 사
회에 내보내 주셔서 저 자신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요 왜 소년원에 보내
셨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았습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히 신앙을 갖겠습니다. 사회에서 교만한 곳을 몇번
가보았습다. 갈때마다 졸림과 지겹고 짜증나고 항상 이런 식이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못난 자식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고 때리기도 했고 욕도 하고 바짓가리 먹은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여기에서 사경학교를 통해 다 씻어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던 했지만 믿음으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회에서 먹는 것을 주니간 교회에 다녔습니다. 밖에 있을 땀 잘 났었는데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어 어떤 죄보다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내가 바보였네 잘 갑니다. 이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간식 때문인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경학교 교마치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목사님하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11월에 나가면 부모님께 고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오셨어 세례받고 성경책을 받으니까 성경책을 교회에 책보다 소중한 거라고 사귀고 또 사회로 다시 돌아갈 때도 다른 것을 다 놓고 기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교회다니며 신혼중에서 세례받고 받은 성경책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가 되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올해의 전도를 사역은 어느 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셨다.

우상의 땅 경주를 향한 5년간이란 지속적인 기도속에 우리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전도사역을 떠나게 되었다.

아무도 떠날만한 환경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7개월, 18개월된 아기를, 하루 전날 머리를 다친 어린이들, 물바라 줄 사람이 없어서 병든 80세 된 노모를 모시고 가야하는 형편이었다. 직장도 4일씩이나 빠지면서도 떠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출발한 우리팀은 오후에 도착하여 도착예배를 드리고 식사후 기도회를 마친 후 곧바로 경로당을 비롯 전도활동에 들어갔다. 거부하던 지남해와는 완전히 다르게 또 와주었다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3일간의 일정 속에서 우리는 새벽기도회, 중보기도회, 천막기도회 등으로 영적 무장을 놓치지 않았다. 46개팀으로 조직하여 경로당을 찾아가 한분 한분을 붙잡고 속으로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 물었더니 다 천당 가고 싶다고 했다. 죄가 있어나나는 몸속에 다 죄가 있다고 대답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



예수님

할 때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리며 감동히 기도했다. 3일간의 지남 집회때 최지혜 전도사역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과 동방교회 성도도 성령으로 하나됨을 느끼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 붙게 되었다. 반신불수의 환자가 가족의 부축으로 간신히 집회에 참석하여 누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음날 밤 집회때는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50명의 결신자를 예수님을 믿어서 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감을 믿으며 영접할 때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을 보았다. 교회 설립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며 동방교회 목사님께서는 새벽기도회때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목이 메어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떠나오자니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고 아쉬운 시간이었다. 떠나오기 직전 시간도 아까워서 어린이들과 함께 경주의 축조전도를 했다. 전도를 포기하다시피한 동방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 붙었으며 우리는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돌아왔다.

☆ 만평

글·그림 / 장민경(jin74@jaangminn.com)

어떤 예배는 인간의 틀에 맞춰져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 모시기에 어떤 예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엄마되기



‘유진이 엄마’라는 새로운 이름이 내게 붙여진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엄마라는 사람은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별다른 공부나 준비가 필요도 없습시다 엄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어쩌면 그렇게 단순했을까. 결혼하고 3년만에 얻은 우리 딸 유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신앙과 나는 ‘둘이 셋이 되었을 때만큼 그물이 하나씩 되는 적은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를 갖게 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을 때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빌었고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을거라는 걱정을 했었다. 부부는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책임과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함께 성장하고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었고 알고 있기가 했지만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아이에 대한 일차적인

이 소희 (청년2부)

예정만으로 일관성 없고 이기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에 대한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걱정 만이었음을 느낀다. 아이는 우리가 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이다. 아이를 잘 키우려는 욕심보다는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위한 준비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애가 낳다! 똑똑하고 잘난 아이가 되기를 은연중에 먼저 바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내 아이가 잘 자라기만을 빌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신앙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되도록, 아이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이를 기르다란 행위로 며칠동안 성경 한장 복보지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느슨해져버린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도 줄음에 겨워 대충 건성으로 해 버리는 느슨해진 나의 게으름을 채찍질하면서, 사랑받은 유진이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통해 느끼는 주님의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실감하면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심령한 것을 사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록게 묵상해 본다.

어린 영혼들을 통해 정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백 미경 (청년2부)

정선 도전

교회에는 강연도 정선 군 일개면에 위치한 작고 예쁜 교회이다. 총가구수는 60가구수 교인은 11명이며 주일학교 어린이는 22명으로 아이들을 목사님이 데려오시는 공부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대원들은 한달 전부터 도전교회와 연락하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며 그곳 아이들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래서인지 도착한 첫날 개회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예배후 미니올림픽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둘째날 새벽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새벽6시까지 비는 계속 내리고 아이들은 오지 않고 그대로 예배인도를 하기 위해 목사님들을 올렸다. 그때 비에 온몸이 다 젖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대수. 빗속을 달리는 그 아이를 우리는 어루만지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연극과 공과공부를 마치고 성경퀴즈대회를 했는데



모두를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날 아이는 어떤 아이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라고 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아이도 최를 고백하는 시간을 통해 영접되게까지 했다. 오후 예배후 우리 세팀으로 나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집과 동네에 나가 속조전도를 했다. 이 마을은 산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기기 위해 도로 나오겠다고 호응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 날 아이들을 모두 초청해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했다. 이번 농어촌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다. 어린 영혼들을 통해 정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모든 행편이 어렵지만 정선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박사의 목사님과 도전교회 위에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눔의 전국길은 없잖아요

'눈물의 열매'

김 국 자 (권사, 1교구)

이별에 같은 날 위해 주님은 몸 버리셨어요... 나같은 죄인도 용서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명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완고한 시대에 시집가서 교회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만 많지 않아요. 천국은 교회의 가리마 마음먹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쫓기고 방황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시의 어른들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 사업에 어려움이 있던 중 저의 남편을 설득해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후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의 젊은 사람들이 하루는 "엄마, 저는 예수가 싫어요. 일요일날 놀러도 못하고 교회에 안갈래요. 엄마나 다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날 아침잠을 지르면서 우연히 벽에 걸린 논문에서 찍은 예수님의 얼굴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슬프고 불쌍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져 흐르면서 울었습니다. 딸이 자다가 놀라서 일어나서 어디 아프냐고 묻기에 "그것이 아니고 오빠가 교회에 안나간다고 한다. 저 사진 좀 봐라."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슬픈 눈으로 보시나 봐라." 그 사건이후 큰 아들들도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작정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들어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한영훈 한영훈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 양오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1교구 김천체장으로님께서는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기도로 위암수술이 잘되셔서 퇴원하고 요양중이십니다.

7교구 김영하집사님은 담석증으로 수술후 고대안병원 6309호실에서 조속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태희성도님은 장출혈로 인한 위급상태로 부훈병원 8123호에 입원중이십니다.

8교구 정장근집사님은 신장경이 손상되어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력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로 점차 회복되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병마와 투쟁중인 환우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대에서

위대한 예술가, 하나님

신 명 길 (집사, 초동무 교사)

강 정 명 (집사, 6교구)



이 주시는 거대한 예술품인 자연을 정한수를 놓고 북을 받고, 성황당에 받고, 솟대와 고목, 달을 향해 비는 것의 우매함을 표현했다. 나는 이런 것이 다 부질 없는 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내 화폭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포도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수상은 뜻밖에 너무도 감사한 결과였다. 늘 물감을 다룰 때면, 절로 탄성이 나온 하나.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색상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좀더 속직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기 위해 애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그림과 삶, 가치관을 변화시키셨다. 더 나아가 나의 깊은 죄성을 건드리시며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은 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감사'로 내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내겐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

삶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허무함도 없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하다. 박자, 음정, 가사까지 물려도 여려라. 내 일출에는 찬송이 터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존경하는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케치북을 든다. 그리고, 즐거이 자작곡 찬송을 부르며 대문을 나선다.

세례문답을 받으시는 아저씨를 보고



권영국 아저씨께 주일 교구 모임을 마치고 세례 문답으로 갔을 때 아저씨가 문답실에 와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학습문답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세례도 안 받았다고 했을 때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례문답을 받으시는 아저씨를 보고 기분이 매우 좋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곧 세례교인이 되는군요.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저씨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가 더 심해져서 한밤중 움직일 때 짜는 할머니라고 저하고 매일 예배드리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노래도 못하는 내가 얼마나 임차해 찬송가를 불렀던지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감사기도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데 할머니도 혼자 못해서 분미 지팡이를 놓고 춤을 추시고 또 아저씨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울으시고 은혜가운데 생활하셨는데 아저씨 퇴원하신 후로는 아저씨 눈치만 보고 속으로만 기도했지요.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아있지만 이제 알고 계시죠. 틀린 것이 아니라. 아저씨도 교회 열심이 다니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깨끗한 머리와 마음에 기쁨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며 몸을 흘리신 만사만행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실 믿어요.

세상에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색들이 있다. 그 무엇보다 감히 하나님님이 만드신 색을 따라갈 수 없다. 초록색을 보면, 모든 나뭇잎들의 푸르름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잘 그려진 그림일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 앞에서는 단상이 나오기 마련이다.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각각의 색깔을 하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달콤한 향기로, 음악으로, 바람으로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지, 오늘날 자연을 보자면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가 나온다.

얼마전, 미술공간에서 특전을 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나는 겉잡이 '기쁜의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나의 작업은 한국화(채색)로 자연에서 얻은 물감을 재료로 쓴다. 본체와 색채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주신 재료로 나의 그림의 언어를 사용한다. 나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박 진 숙 (에바다부, 성인반)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초록빛 동굴속 같은 기도원 뒤편산의 언덕에 아침 알개가 고요히 피워오르고 있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는 자연들의 합창소리를 듣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그 숲속의 평화로움에 도취되어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의 안식을 느끼며 장식되지 않은 무릉도 유출길을 걸었다. 신선한 풀향기와 산소를 홀로 마음껏 마시며 진정한 감사를 노래했다. 예민 동산 동편으로 흐르는 냇재강이 유브라테라 했단다. 그 아름다운 강줄기를 따라 걷는 착각도 해보았지요. 매년 기도원을 찾을 때마다 내가 머물던 시멘트 방석을 이끼가 겹겹이 끼어 있었지만 포근히 숨쉬어 있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창피의 눈물을 흘리며 거목을 붙들고 먼지로 뭍힌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얻었는지 주시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내 힘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그 어떤 세파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신앙인이 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간혹 나무잎 사이로 노란 아침해살이 가늘게 흘러들어오고 이른 새벽이었다면 더 은은해보일 텐데 아쉬울까 후회가 되었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팔과 눈물이 범벅되어 금방 물에 적혀버리다가 나온 것처럼 날아갈 듯한 행복을 느꼈지요. 그제 바로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음파 박자가 엉덩인 찬송이었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수련회 체험했던 내 기도의 비결은 오직 감사와 찬양이었습

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듣지 못하고 한쪽눈이 실명하고 각막이식 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지만 비록 한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없이 아름다울 뿐이었습니다. 겹겹이인 내가가 그 조용한 산속에서 오랫동안 혼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기쁜 동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에바다 수련회에 매년 참석하다보면 말로 글로도 표현할 수도 없는 큰 감동을 한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들의 헌신적인 봉사하시는데 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가 되고 예시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기도원 숙소도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 너무도 유익하고 즐거운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단기 선교의 찬양과 연극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소리없는 찬양과 울음을 보아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여 이 세상엔 오직 주님 한분만 사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휴가철이나 바다로 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땅히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노 경 목(목사, 사랑부 지도)



사람부 성경학교를 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사랑부는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은 장애로 인해 혹은 많은 비장애인(일반인)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성경학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몸짓과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마음껏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엔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마음껏 웃었습니다. 소변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공동체 훈련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어 함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서로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탄허 있던 친구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문이 트였습니다. 웃지 않던 친구가 웃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의 영혼은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전하는 모든 말씀은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교사들의 영혼도 심령이 가난하고 복이 있습니다. 항상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영혼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한 친구가 기뻐하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꿈 밖에 천국을 보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5:3) 장애인들과 마주쳤을 때 표정없는 의연보다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환한 미소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자리

육 주 원 (영어에바부, 교사)



내가 교회학교 영어에바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전에는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고 생각하여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은 염두도 못냈었는데 "봉사가 하나님께 성숙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6학년 아이들을 맡았다. 난 이것을 때 교회학교를 열심히 다닌 어린이가 아니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이 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맡게 된 아이들은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다녀왔던 아이들이라 오히려 내가 배우는 점이 많았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되풀이해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처음 크게 은혜를 받았던 때는 교사로서 처음 여름성경학교를 했을 때이다. 이전에는 앞에 서서 남들을 이끌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놀이시간과 성경활동시간을 맡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내 말을 안들으면 어쩌나, 하지 않거나 하면 어쩌나 등등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저희를 준비하게 했다. 다행히 다른 선생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은 집중을 잘하였고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공부에 대하여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학교 교사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아직도 일정한 장소를 못 찾고 있는 영어에바부 교회학교가 자리를 빨리 찾기를 바란다.

내비의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한학을 담겨두고 있는 나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책을 많이 읽어왔다. 그 책을 읽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고, 다짐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자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이책 저책을 뒤집어보고, 제보기도 한 나는 도움이 될 거야 아니야를 반복하며 고심 끝에 몇권의 책을 골라보려고 했다. 이런 내 행동은 '내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리라' 호탕한 마음뿐이었다.

책상 한켠에 이빈에 꼭 읽으리라 다짐했던 책들을 쌓아두고 첫 번째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책속에는 좋은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수필을 깨내 열심히 적어 내려갔다. 그 순간이 됐던 나에게 '내가 성경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읽었던 적이 있었나 성경 읽기에 이렇게 열심본적이 있었다.' 였다. Q.T를 하니까 성경말씀은 나중에 또 읽으면 되지... 자기 전에 읽으니까, 이 정도 읽으면 됐지. 나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 만족감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읽었던 것이 생각났다. 거기에서 세상의 좋은 글들, 명언들, 나에게 지점이 된다고 생각했던 글들은 다 적어두고, 오래놓고, 보관까지 했던 나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 적어두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주님의 말씀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상이 주는 지식에는 가끔 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가끔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사모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지혜를 아니 더 큰사랑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최은아 기자)

